

남녀 중학생의 부/모 애착과 또래괴롭힘 방어, 방관행동의 관계: 정서조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승 연[†]

송 경 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괴롭힘 방어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서울, 경기, 부산, 충주 지역 소재의 중학교 1, 2학년 579명(남: 292, 여: 287)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성별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애착에서 방어, 방관행동으로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 모형이 더 적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 애착이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 애착이 정서조절을 통해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였으며, 모 애착이 정서조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모두를 통해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 효과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한편, 모 애착이 정서조절을 통해 방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시에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 애착,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 방어행동, 방관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sleel@ewha.ac.kr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괴롭히는 또래괴롭힘(Olweus, 1978)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서 낮은 자존감, 우울, 사회적 불안, 자살사고나 시도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연합되며, 사회적 적응문제를 야기한다(김희화, 2002; 최미경, 도현심, 2000; 최보가, 임지영, 1999; Klomek, Marrocco, Kleinman, Schonfeld, & Gould, 2007; Kumpulainen, Rasanen, & Puura, 2001). 최근 들어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또래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주변인(bystanders)의 경우에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Rivers, Poteat, Noret와 Ashurst(2009)는 12-16세 청소년 집단에서 또래괴롭힘 목격 경험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관계 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또래괴롭힘이 단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또래괴롭힘의 예방과 개입전략은 주변인까지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변인에는 가해자의 괴롭힘을 옆에서 돕거나 부추기는 동조자(follower)와 강화자(reinforcer), 가해행동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defender), 또래괴롭힘 상황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수동적 방관자(outsider)가 포함된다(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전체 학생의 약 80%에 달하는 이러한 주변인들(Hawkins, Pepler, & Craig, 2001)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괴롭힘이 악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Salmivalli, 2010), 최근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구조에서 벗어나 이들 주변인의 역할과 특성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 중 방어자는 집단 내 중재자로서 가해자의 공격행위를 자연스레 약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괴롭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57%의 경우에서 약 10초 내에 가해행동이 중지되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Hawkins et al., 2001). 한편 방어자를 친구로 둔 피해학생의 경우 방어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Sainio, Veenstra, Huising, & Salmivalli, 2010). 이처럼 방어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방어자는 또래괴롭힘 전체 참여 역할 중 17-20% 정도에 불과하며(O'Connell, Pepler, & Craig, 1999; Salmivalli, Lappalainen, & Lagerspetz, 1998), 괴롭힘 상황을 모른 척 하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는 학급 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심희옥, 2005; 차윤희, 2005; Salmivalli et al., 1996). 특히 방관자는 가해자를 옆에서 돕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 자체는 가해자에 의해 자신의 괴롭힘이 수용되고 심지어 존경받는다는 증거로 잘못 해석되기 때문에(Kärnä, Voeten, Poskiparta, & Salmivalli, 2010; Kärnä et al., 2011) 괴롭힘 상황의 반복과 악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방관하기보다는 가해행동에 반대하거나 피해자를 옹호하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가 얻는 사회적 승인은 크게 줄어들고 괴롭힘 행동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Kärnä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수의 방관자들이 어떻게 하면 방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방어행동을 설명하는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방어자와 방관자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구자들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어행동을 촉진하는 공감(송경희, 이승연, 2010; Caravita, Di Blasio & Samivalli, 2010; Gini, Albiero, Benelli & Altoè, 2007), 정서조절(Maeda, 2004), 사회적 자기효능감(Gini, Albiero, Benelli & Altoè, 2008; Pöyhönen, Juvonen, & Salmivalli, 2010), 애착(Nickerson, Mele, & Princiotta, 2008) 등과 같은 변인에 주목해 왔다. 이 중 애착은 부모-자녀 간 관계의 대표적 지표로서, 부모로부터 보다 독립적이 되어 가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로서 작용하여 또래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2; Elliot & Cornell, 2009). 불안정한 애착은 또래관계 문제나 사회적 유능성 부족, 공격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Monks, Smith, & Swettenham, 2005), 또래괴롭힘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Troy와 Sroufe(1987)는 회피애착을 형성한 4.5세 아동의 경우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수 있고, 저항애착인 경우 피해자인 경향이 있으며, 두 아동 중 한 명이라도 안정애착일 경우 또래괴롭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관찰한 바 있다. 또한 Myron-Wilson(1998: Monks et al., 2005에서 재인용)은 7-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들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식별된 아동들이 불안정 애착인 경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맥락,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두면서도 부모와의 애착을 개념적 틀로 사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또래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도현심, 2000; Elliot & Cornell,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가해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Elliot과 Cornell(2009)이나 방어, 방관행동에 대한 애착의 역할을 살펴본 Nickerson 등(2008)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먼저 Elliot과 Cornell(2009)은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공격적 태도가 늘어나고 괴롭힘 가해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완전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한편, Nickerson 등(2008)은 기존 연구들이 애착과 또래괴롭힘 가해 또는 피해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방어, 방관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안정적인 모 애착이 방어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만 부 애착은 방어, 방관행동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경우 방어행동에 있어 모 애착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지만,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애착과 또래관계 또는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아동의 성별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 애착 각각이 또래괴롭힘 방어 및 방관행동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남학생만이 모 애착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거나(최미경, 도현심, 2000), 남학생의 가해행동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방식에 의해 예측되었으나 여학생의 가해행동은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의해서만 예측되었던 연구결과(송경희, 백지현, 송주현, 이승연, 2009),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을 적게 지각할수록,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을 적게 지각할수록 방관자 역할에 더 많이 속했다는 결과(심희옥, 2010)가 그 예이다. 이처럼 부모와 아

동의 성별 조합을 고려할 필요성은 성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로 아동이 자신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지각하게 될 뿐 아니라(심희옥, 2010), 서로의 성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연구(Maccoby, 1990)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애착 각각이 방어, 방관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편, Nickerson 등(2008)의 연구는 단순히 회귀분석을 통해 부/모 애착이 방어행동 및 방관행동을 각각 예측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을 뿐, 애착이 어떻게 방어와 방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Elliot과 Cornell(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애착이 어떻게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애착대상과의 초기 경험이 내적작동모델의 발달 뿐 아니라, 정서적 각성의 조절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이 애착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매개한다고 논의해 왔다(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 & Tomich, 2000). 애착대상과의 경험으로부터 타인의 가용성과 반응에 대해 고려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치감과 효능감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 역시 유능한 또래관계에 기여할 것이다(Renken, Egeland, Marvinney, Mangelsdorf, & Sroufe, 1989).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이 방어행동이나 방관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정서조절능력이나 자기효능감 등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정서조절능력은 부모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달리 발달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부모와 안정애착

을 형성한 아동은 부적 정서(공포, 두려움, 불안 등)를 경험할 때 양육자의 민감한 보살핌으로 인해 정서적 각성이 낮춰짐과 동시에 스스로도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양육자로부터의 비일관적인 관심과 주의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과소통제 하거나 과잉통제 하게 된다(Sroufe, 1983; Vondra, Shaw, Swearingen, Cohen, & Owens,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방어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핵심능력이다(장미희, 이지연, 2011; Bandura, Caprara, Barbaranelli, Gerbino, & Pastorelli, 2003; Caprara & Steca, 2005; Maeda, 2004). 예를 들어,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절을 잘하는 청소년들은 교사와 또래로부터 친사회적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Vorbach & Foster, 2003).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Maeda(2004)의 연구에서 방어자는 피해자, 동조자, 방관자보다 더 나은 정서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은 남학생의 방어자 역할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Maeda(2004)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방어자 역할을 예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방어행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몇몇 연구가 존재한다. 선행연구(송경희, 이승연, 2010; Caravita et al., 2010; Maeda, 2004)에서 높은 정서적 공감능력은 남녀 모두의 방어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정서적 공감은 남학생의 경우에만 방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정서적 공감이 방어행

등을 예측하지 못하는 가능한 이유로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이 필수적이라는 Eisenberg(2000)의 설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이 또래괴롭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된 부정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에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09)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방어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은 Bandura 등(2003)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더 낮았던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Caprara & Steca, 2005; Maeda, 2004).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이 애착과 방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함과 동시에 이 같은 패턴이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조절이 애착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방어자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과연 방어행동을 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이나 정서조절능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그 행동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괴롭힘을 목격하면서도 그냥 방관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4-6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부

분매개 하였으며(양경수, 2011),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은아와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Rigby와 Johnson(2006)은 이러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방어행동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래괴롭힘이 사회적 맥락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는 사회적 과제의 개인적 숙달 및 기대를 반영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이 더 적절한 변인일 수 있다. 실제로 Gini 등(2008)은 12-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은 정적으로 예측하고 방관행동은 부적으로 예측함을 증명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을 변별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던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방어, 방관행동과의 관계를 성별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애착 및 정서조절의 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양육자와의 안정애착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뿐 아니라 전반적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으며(Contreras et al., 2000; Renken et al., 1989), 특히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10-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Coleman(2003)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양 부모 모두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맺었거나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 불안정한 애착을 맺은 경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음은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사

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의 중요한 요소이다(Mcdowell, Kim, O'Neil, & Parke, 2002).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었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아동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Mcdowell, O'Neil, & Parke, 2000). 또한 Contreras 등(200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모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유능감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특성임을 고려한다면(Mallinckrodt & Wei, 2005), 정서조절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서조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데, Caprara와 Steca(2005)가 부정적/긍정적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변인으로 작용함을 성인을 대상으로 밝힌 적은 있다. 이 연구가 비록 정서조절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긴 하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정서조절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아동은 안정애착의 대상인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관찰 및 훈육을 통해 배우게 되며, 잘 발달된 정서조절능력은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Thompson, 1994). 즉,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이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을 구분하는 주요 변인이다(Gini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애착과 방어행동 또는 방관행동으로의 경로에서 정서조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은 일관되게 서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지만(백지현, 2010; Pozzoli & Gini, 2010),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은 서로 다른 변인 또는 기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Pozzoli & Gini, 2010). 한편, 방관집단은 또래압력을 많이 느끼며 자기조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들 중 일부는 후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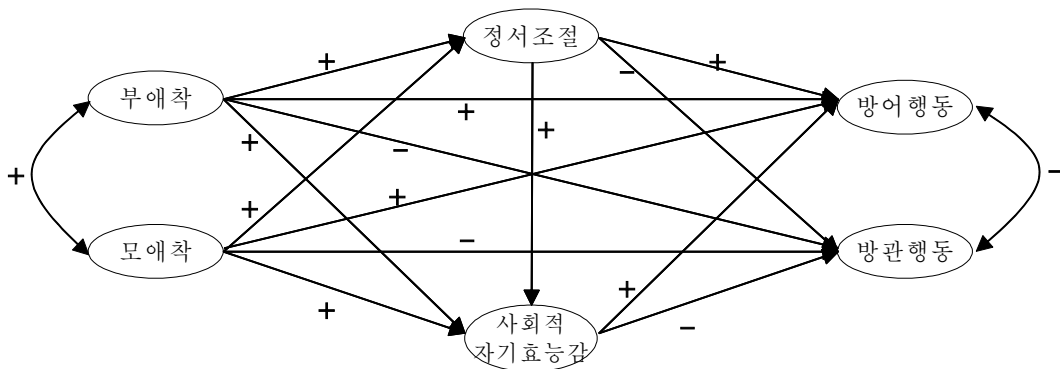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애착,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 방어행동, 방관행동에 대한 연구모형

것으로 판단되며(김연화, 한세영, 2011), 주변인 대상의 개입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이러한 방관자 또는 방관행동의 특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방어행동과 가해행동을 대비시켰던 선행연구들(송경희, 이승연, 2010; 오승은, 이승연, 2011; Caravita et al., 2009; Caravita et al., 2010; Gini et al., 2007)과 달리, 주변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을 대비시켜 개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래피로움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기제에 의해 방어와 방관이라는 상반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주변인 대상의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애착,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및 방관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관자를 포함하여 주변인들의 방어행동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개입전략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초기까지 또래 피로움 현상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Pellegrini & Long, 2002)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67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수거한 677부의 설문지 중 먼저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부/모 애착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80명의 자료 역시 제외시켰다. 그 결과 남학생 292명(50.4%), 여학생 287명(49.6%), 총 57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평균연령은 13.16세($SD=.64$, $n=574$)였다.

절차

2011년 7월과 9월,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 충주, 부산 지역 6개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에 의한 불성실한 응답이 증가하므로 측정도구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 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담임 교사 및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 설문 실시 요령을 충분히 습득한 각 반의 담임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약 20분 간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판 (IPPA-R) 중 부/모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채점체계는 척도 개발자인 Greenberg(2009)의 방식을 따랐다. 이 도구는 신뢰(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6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부 애착과 모 애착을 각각 측정하며,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이 세 하위척도를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5점 Likert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로, 소외 척도의 문항들은 역채점 한다.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옥정(1998)

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 애 착 .93, 모 애 착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두 .94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문용린(1997: 문용린, 박윤정, 이강주, 1998에서 재인용)이 개발한 청소년용 정서지능검사에서 정서조절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3점 Likert척도였는데, 예비연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척도값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하위척도가 없는 단일차원이었기에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요인부하량 크기순으로 나열한 뒤 지그재그 방식으로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 세 가지 하위차원(ER1, ER2, ER3)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윤정(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Puckett, Aikins과 Cillessen(2008)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Self-Report Measure of Social Self-Efficacy를 이중 역번역 과정에 따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우정(8), 사회적 주장성(5), 사회적 그룹(6), 사회적 수행(3), 도움 주고받기(3), 갈등(5)의 6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연구 결과, 척도가 7점 Likert척도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중학생들이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1점: 매우 어렵다-5점: 매우 쉽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한편,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로 번안된 척도가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_{(390)}=1135.335$, CFI=.787, TLI=.763, RMSEA=.087). 한국어 번안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SAS 9.2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령대의 새로운 표본($n=351$)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요인구조의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번안된 척도가 단일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PASW18.0의 주성분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요인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여 지그재그 방식으로 문항 묶음화를 실시, 세 개의 하위차원(SE1, SE2, SE3)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Puckett 등(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학년 .93, 8학년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방어행동 및 방관행동

Salmivalli 등(1996)이 개발한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기초로 서미정(2008)이 재구성한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질문지 중, 방어자와 방관자 하위차원을 사용하였다. 방어, 방관 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 5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척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방어행동, 방관행동 각각 요인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여 짝짓기 방식으로 문항

목음화를 실시, 세 개의 하위차원(방어행동; DB1, DB2, DB3, 방관행동; OB1, OB2, OB3)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방어 .82, 방관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방어 .82, 방관 .8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t 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구조방정식 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다집단 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는 Sobel(1982)의 공식과 다변량 델타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 시 수정지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EM(expectation-maximization)방식으로 결측치를 대체한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PASW 18.0, AMOS 18.0 이었다.

수집된 자료와 연구모형이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χ^2)검증,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활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이 중 χ^2 는 상대적으로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도 함께 고려해서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CFI와 TLI는 .90이상(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SRMR는 .05(Byrne, 1998), RMSEA는 .06 이하일때(Hu & Bentler, 1999)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SRMR은 .08이하, RMSEA는 .07이하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결 과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단순상관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단순상관을 분석하였다(표 1).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정서조절 2(ER2), 사회적 자기효능감 1(SE1), 방어행동1(DB1), 방어행동 3(DB3)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_{ER2}=2.07, p<.05$; $t_{SE1}=2.60, p<.05$; $t_{DB1}=3.10, p<.01$; $t_{DB3}=3.04, p<.01$).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적 상관(.12, $p<.05 \sim .87, p<.001$)과 부적 상관(-.12, $p<.05 \sim -.32, p<.001$)이 폭넓게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측정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단변량 수준에서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 방어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모형설정 및 적합도 분석

중학생이 부모와 맺은 애착,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방어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애착과 방어행동, 방관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 뿐 아니라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중간에 매개하는 부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애착과 방어행동, 방관행동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으므로, 애착에서 방어행동, 방관행동으

표 1. 속정변인들의 단순상관(남학생 $n=292$, 여학생 $n=28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P CO	1	.82***	.65***	.55***	.48***	.40***	.16***	.23***	.19***	.09	.09	.15*	.12*	.11	.16***	-.09	-.09	-.12*	
2. P TR	.85***	1	.72***	.51***	.57***	.44***	.20***	.24***	.20***	.09	.09	.19*	.03	.07	.12*	-.03	-.03	-.01	
3. P AL	.57***	.65***	1	.39***	.41***	.56***	.05	.14*	.05	.02	.04	.08	-.10	-.10	-.03	-.04	-.07	.00	
4. M CO	.50***	.46***	.35***	1	.80***	.61***	.37***	.39***	.37***	.13*	.15*	.21***	.04	.10	.17***	-.17***	-.04	-.08	
5. M TR	.36***	.44***	.34***	.81***	1	.68***	.40***	.42***	.40***	.11	.13*	.19*	.02	.10	.15*	-.18***	-.07	-.09	
6. M AL	.23***	.28***	.42***	.57***	.63***	1	.19***	.21***	.19***	.02	.02	.11	-.11	-.05	.02	-.14*	-.04	-.07	
7. BR1	.25***	.29***	.20***	.38***	.38***	.20***	1	.65***	.72***	.16***	.23***	.22***	.22***	.18***	.22***	-.16***	-.04	-.03	
8. BR2	.40***	.38***	.20***	.43***	.40***	.18***	.68***	1	.62***	.28***	.29***	.30***	.21***	.20***	.22***	-.16***	-.09	-.09	
9. BR3	.34***	.33***	.15*	.44***	.38***	.27***	.68***	.69***	1	.22***	.29***	.31***	.33***	.29***	.27***	-.21***	-.12	-.15*	
10. SB1	.32***	.30***	.20***	.27***	.24***	.14*	.42***	.39***	.42***	1	.86***	.85***	.20***	.26***	.17***	-.04	.00	-.18***	
11. SB2	.33***	.31***	.19*	.26***	.22***	.10	.46***	.40***	.46***	.87***	1	.87***	.23***	.28***	.18***	-.10	-.06	-.20***	
12. SB3	.36***	.34***	.23***	.30***	.24***	.12*	.50***	.45***	.52***	.84***	.89***	1	.21***	.25***	.20***	-.09	-.06	-.19***	
13. DB1	.17***	.14*	.00	.18*	.17***	.04	.26***	.24***	.23***	.11	.16***	.14*	1	.67***	.55***	-.30***	-.25***	-.32***	
14. DB2	.20***	.17***	-.01	.15*	.14*	.01	.26***	.23***	.23***	.25***	.27***	.27***	.65***	1	.58***	-.25***	-.24***	-.32***	
15. DB3	.22***	.12*	-.06	.10	.03	-.08	.15*	.15*	.16***	.10	.15*	.14*	.53***	.58***	1	-.24***	-.22***	-.23***	
16. CB1	-.12*	-.13*	-.28***	-.16***	-.13*	-.19***	-.12*	-.05	-.13*	-.05	-.11	-.13*	-.28***	-.29***	-.26***	1	.65***	.70***	
17. CB2	-.12*	-.08	-.21***	-.04	-.02	-.10	-.10	-.06	-.14*	-.10	-.15*	-.16***	-.21***	-.32***	-.26***	.67***	1	.64***	
18. CB3	-.11	-.10	-.31***	-.13*	-.13*	-.20***	-.10	-.04	-.10	-.13*	-.18***	-.16***	-.16***	-.25***	-.20***	.72***	.64***	1	
예도	남	-.19	-.68	-.89	-.34	-.46	-.99	-.13	-.33	-.12	-.50	-.30	-.41	.31	.22	.38	.14	.16	.31
여	-.04	-.63	-.102	-.29	-.51	-.74	-.30	-.12	-.15	-.45	-.20	-.25	.34	.53	.56	.42	.52	.40	
침도	남	-.41	-.11	.12	-.16	-.45	.60	-.25	.06	-.34	-.50	-.63	-.21	-.34	-.57	-.68	-.30	-.29	.00
여	-.64	-.21	.75	-.44	-.16	-.04	-.42	-.52	-.22	-.22	-.48	-.27	-.05	.11	-.07	.45	.24	.63	
M	남	28.83	36.62	23.87	31.38	38.11	24.27	18.25	18.08	16.94	39.48	37.93	38.30	4.55	4.51	4.29	5.53	5.81	5.50
SD	남	(7.60)	(8.60)	(4.43)	(7.09)	(8.01)	(4.64)	(3.59)	(3.77)	(3.73)	(6.86)	(6.94)	(6.53)	(1.66)	(1.66)	(1.81)	(1.82)	(1.86)	(1.74)
여	27.93	36.97	24.20	32.09	38.14	24.45	17.74	17.41	16.52	38.00	37.19	37.98	4.56	4.30	4.41	5.09	5.60	5.08	
여	(7.85)	(9.21)	(4.53)	(7.60)	(8.24)	(4.18)	(4.18)	(4.04)	(3.74)	(6.83)	(6.36)	(6.11)	(1.69)	(1.70)	(1.87)	(1.63)	(1.65)	(1.55)	
r	남	1.41	-.046	-.0.9	-.1.15	-.0.05	-.0.49	1.59	2.07	1.35	2.60	1.34	0.6	0.6	1.55	-.0.75	3.10	1.45	3.04

*** $p < .001$, ** $p < .01$, * $p < .05$, 주. P=father, M=mother, CO=communication, TR=trust, AL=allusion, BR=emotion regulation, SB=social self-efficacy, DB=defending behavior, CB=outstanding behavior, 대각선 아래: 남, 대각선 위: 여

표 2. 형태동일성 검증 및 모형 적합도, 모형 차이검증(남학생 $n=292$, 여학생 $n=287$)

		χ^2	df	$\Delta\chi^2$	Δdf	CFI	TLI	SRMR	RMSEA (90% CI)
남학생	연구모형 (부분매개)	305.352	120	4.142	4	.947	.932	.053	.073 (.063~.083)
	대안모형 (완전매개)	309.494	124			.947	.934	.058	.072 (.062~.082)
여학생	연구모형 (부분매개)	302.218	120	6.443	4	.946	.931	.053	.073 (.063~.083)
	대안모형 (완전매개)	308.661	124			.945	.933	.055	.072 (.062~.082)

로 가는 직접 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함께 검증하였다.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이 형태동일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표 2).

남학생의 경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모두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나(연구모형: $\chi^2(120)=305.352$, $p<.001$, CFI=.947, TLI=.932, SRMR=.053, RMSEA=.073 / 대안모형: $\chi^2(124)=309.494$, $p<.001$, CFI=.947, TLI=.934, SRMR=.058, RMSEA=.072), χ^2 차이검증 결과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대안모형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chi^2_{diff}(4)=4.142$). 여학생도 두 모형 모두 중간 수준의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연구모형: $\chi^2(120)=302.218$, $p<.001$, CFI=.946, TLI=.931, SRMR=.053, RMSEA=.073 / 대안모형: $\chi^2(124)=308.661$, $p<.001$, CFI=.945, TLI=.933, SRMR=.055, RMSEA=.072), χ^2 차이검증 결과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chi^2_{diff}(4)=6.443$).

최종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안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토록 한 기저모형과 완전 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 결과 χ^2 차이검증은 유의하지 않았고($\chi^2_{diff}(12)=11$), TLI는 .004, RMSEA는 .01만큼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후, 어떤 경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가장 적은 순서대로 제약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총 9개 모형 중 7번째 모형까지만 동일성이 확보되어 남학생과 여학생은 관계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표 3).

구체적으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그림 2, 표 4),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 애착에서 정서조절($\beta_{11}=.41$, $\beta_{21}=.57$, $p<.001$), 정서조절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beta_{12}=.55$, $\beta_{22}=.34$, $p<$

표 3.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조동일성 모형 적합도(남학생 $n=292$, 여학생 $n=287$)

		동일화 제약 순차적 경로	χ^2	df	p	$\Delta\chi^2$	Δdf	TLI	CFI	RMSEA (90% CI)	판정
측정 동일성			629.027	260				.937	.946	.050	수용
구 조 동 일 성	모형 1	정서조절→방어	629.030	261	.000	.003	1	.937	.946	.049	수용
	모형 2	정서조절→방어 사회적 자기효능감→방관	629.177	262	.000	.147	1	.937	.946	.049	수용
	모형 3	정서조절→방어 사회적 자기효능감→방관 사회적 자기효능감→방어	631.569	263	.000	2.392	1	.937	.946	.049	수용
	모형 4	정서조절→방어 사회적 자기효능감→방관 사회적 자기효능감→방어 정서조절→방관	631.610	264	.000	.041	1	.938	.946	.049	수용
	모형 5	정서조절→방어 사회적 자기효능감→방관 사회적 자기효능감→방어 정서조절→방관 모애착→사회적 자기효능감	631.732	265	.000	.122	1	.938	.946	.049	수용
	모형 6	정서조절→방어 사회적 자기효능감→방관 사회적 자기효능감→방어 정서조절→방관 모애착→사회적 자기효능감 모애착→정서조절	634.244	266	.000	2.512	1	.938	.946	.049	수용
	모형 7	정서조절→방어 사회적 자기효능감→방관 사회적 자기효능감→방어 정서조절→방관 모애착→사회적 자기효능감 모애착→정서조절 부애착→사회적 자기효능감	635.310	267	.000	1.066	1	.938	.946	.049	수용
	모형 8	정서조절→방어 사회적 자기효능감→방관 사회적 자기효능감→방어 정서조절→방관 모애착→사회적 자기효능감 모애착→정서조절 부애착→사회적 자기효능감 부애착→정서조절	642.563	268	.000	7.253	1	.938	.945	.049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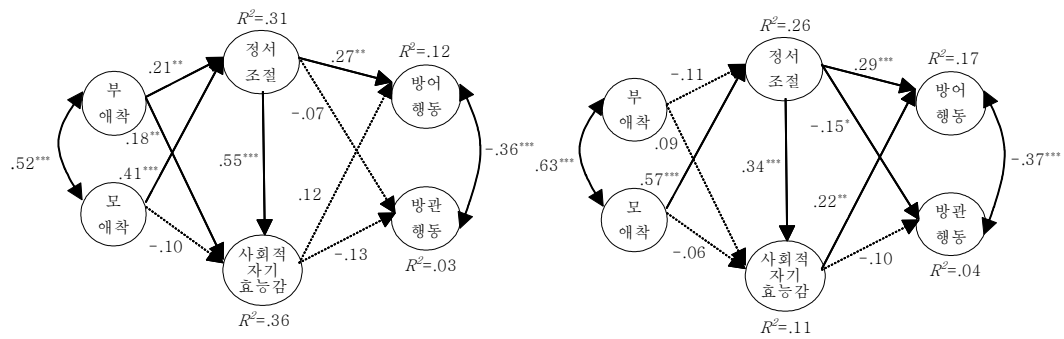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좌: 남학생/우: 여학생)

*** $p < .001$, ** $p < .01$, * $p < .05$, 주.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001), 정서조절에서 방어행동($\beta_{남} = .27, p < .01$, $\beta_{여} = .29, p < .001$)간의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중 정서조절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경로는 남학생에게서 더욱 강력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가 발견되었다.

또한 부 애착에서 정서조절($\beta = .21, p < .01$), 부 애착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경로($\beta =$

.18, $p < .01$)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집단 분석 결과 부 애착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 크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 애착에서 정서조절의 경로계수 크기 차이는 유의미하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더욱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안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남학생($n=292$)				여학생($n=287$)			
		<i>B</i>	<i>SE</i>	β	<i>t</i>	<i>B</i>	<i>SE</i>	β	<i>t</i>
정서조절	← 부애착	.08	.03	.21	3.10**	-.04	.03	-.11	-1.35
정서조절	← 모애착	.18	.03	.41	5.76***	.25	.04	.57	6.70***
사회적효능감	← 부애착	.14	.05	.18	2.79**	.06	.06	.09	1.11
사회적효능감	← 모애착	-.08	.06	-.10	-1.36	-.05	.08	-.06	-.63
사회적효능감	← 정서조절	1.16	.15	.55	7.57***	.61	.14	.34	4.39***
방어행동	← 사회적효능감	.02	.02	.12	1.44	.05	.02	.22	3.19**
방관행동	← 사회적효능감	-.03	.02	-.13	-1.55	-.02	.02	-.10	-1.38
방어행동	← 정서조절	.12	.04	.27	3.17**	.11	.03	.29	4.06***
방관행동	← 정서조절	-.04	.05	-.07	-.87	-.06	.03	-.15	-2.13*

*** $p < .001$, ** $p < .01$, * $p < .05$; 주. 밑줄 친 계수는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한 경로를 의미함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Z
남학생 (n=292)	부애착	→	정서조절	→	방어행동	2.182*
	모애착	→	정서조절	→	방어행동	2.754**
여학생 (n=287)	모애착	→	정서조절	→	방어행동	3.477***
	모애착	→	정서조절	→	방관행동	-2.006*
	모애착	→	정서조절	→	사회적 자기효능감 → 방어행동	2.380*

*** $p < .001$, ** $p < .01$, * $p < .05$

한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방어행동의 정적 경로($\beta = .22, p < .01$), 정서조절에서 방관행동의 부적 경로($\beta = -.15, p < .05$)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집단 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경로계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 애착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방관행동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

부/모 애착이 정서조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각각 영향을 주어 방어행동, 방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효과와, 부/모 애착이 정서조절, 정서조절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방어행동 및 방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단순매개 효과는 Sobel(1982)의 공식¹⁾을 사용하여 Z값을 산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부 애착, 모애착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

절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Z_{부 애착} = 2.18, p < .05$, $Z_{모 애착} = 2.75, p < .01$). 여학생의 경우 정서조절은 모 애착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Z = 3.48, p < .001$), 모 애착과 방관행동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역할($Z = -2.01, p < .05$)을 하고 있었다(표 5).

이중매개 효과는 다변량 델타 방법²⁾을 사용하여 Z값을 계산하였다. 이중매개경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나타났는데, 검증 결과 모 애착이 정서조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라는 두 개의 매개변수 모두를 통해 방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 = 2.38,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애착이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방관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기제를 이해하고자, 부/모 애착과 정서조절, 사회적 자기효능감, 방어 및 방관행동의 구조적

$$1)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2) Z = \frac{abc}{\sqrt{a^2 b^2 S_c^2 + a^2 c^2 S_b^2 + b^2 c^2 S_a^2}}$$

관계를 남녀 집단별로 검증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이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변인이지만 (Bowlby, 1982), 국내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은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와의 애착은 남녀 모두의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의 경우에만 아버지와의 안정적 애착의 결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과 어머니의 애착관계는 주로 양육민감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아동과 아버지의 애착관계는 주로 놀이 활동 시의 탐색민감성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Grossmann et al., 2002)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 활동 시, 아버지의 민감하고 도전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이 새로운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능성을 키워준다(옥정, 2012; Grossmann et al., 2002). 특히 여아에 비해 남아들은 아버지와 거칠고 도전적인 놀이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환경을 탐색하고 여러 기술을 익히게 되며 (Grossmann et al., 2002; Jacklin, DiPietro & Maccoby, 1984), 사회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역시 증가했을 수 있다.

한편, 아버지와의 애착 안정성($\beta=.21, p<.01$)이 모 애착의 경우($\beta=.41, p<.001$)보다는 덜 강력하지만 남학생의 정서조절능력 역시 향상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버지의 양육민감성이 어머니에 비해 떨어지긴 하지만 (Lamb, Frodi, Frodi, & Hwang, 1982),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탐색민감

성 역시 안전감을 제공하며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과도 연합될 것이다. 이는 아버지와 격렬한 놀이과정을 통해, 아동이 더욱 강렬한 정서경험과 함께 이를 조절하는 능력 역시 학습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Parke, 1994).

한편, 정서조절능력은 남녀 모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련성은 특히 남학생에게서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추측했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두 변인 간 관계가 남학생에게서 더 강력했던 것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보통 남아들이 아버지와 격렬한 놀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 상호작용 하면서(Starrels, 1994),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효능감이 모두 증진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 안정적인 부/모 애착은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방어행동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여학생의 경우 안정적인 모 애착만이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방어행동으로 이어졌다. 여학생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방어행동을 예측하지 않는 이유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야기된 부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주관적 고통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Caravita et al., 2009; Eisenberg, 2000)과 일치하게, 여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방어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방어자 역할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Maeda(2004)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한편,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할수록 여학생의 방관행동은

증가하였다. 이는 또래괴롭힘을 목격할 때 불안이나 두려움, 죄책감, 걱정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특히 가해자의 다음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방관행동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Gini et al., 2008; Janson & Hazler, 2004).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이 남학생의 방관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방관행동이 이러한 개인내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괴롭힘 참여역할에 관련된 요인들을 판별분석했을 때, 남학생의 역할 판별에 주변 관계나 맥락관련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 개인내적 변인만이 관련 있었던 김연화, 한세영(2011)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만 안정적인 모 애착이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어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방어행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어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아이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제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Gourneau, 2012; 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은 여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8-16세 대상의 Cappadocia, Pepler, Cummings, 그리고 Craig (2012)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더 많은 방어행동을 보고

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기효능감과는 상관없이 공감수준이 높은 것이 방어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발견과 유사하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여학생의 주된 공격성 형태인 관계적 공격성을 다루는데 더 효과적이며, 공감은 남학생에게 두드러지는 신체적, 언어적인 외현적 공격성을 다루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김은아,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 학급규준이 괴롭힘을 허용한다고 지각할 경우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공감과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으로 덜 이어졌던 것처럼, 남학생의 개인내적 특성이 사회적 맥락과 이에 대한 지각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을 구분하는 주요 변인이었던 Gini 등(2008)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이 남녀 모두에서 방관행동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어와 방관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이 동일한 특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거나 완전히 다른 변인들이 방어와 방관행동에 연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Pozzoli와 Gini(2010)의 주장처럼,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여학생의 방어행동만을 설명하였을 뿐 남녀 모두에서 방관행동과는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모 애착이 방어행동을 예측하였으나 부 애착은 방어, 방관행동을 모두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Nickerson 등(2008)의 연구와 달리, 남녀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의 경우 부 애착도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의 경우 모 애착이 방관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이 가해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공격

적 태도를 매개하는 완전매개모형만이 유의했음을 밝혔던 Elliot과 Cornell(2009)의 연구처럼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남녀 모두에서 방어, 방관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정서조절이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방어, 방관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방어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 친밀감을 늘리는 것이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여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은 방어행동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방관행동을 줄이는 것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처럼 단순히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서, 특히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모델링이나 역할극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미묘한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방어행동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변인 개입프로그램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Cappadocia et al., 2012). 한편 남학생의 방어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증진보다는 우울이나 불안, 공포, 분노, 적

대감 등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개인내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방어행동 분산의 약 12, 17%, 방관행동 분산의 약 3, 4%만을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유형이든 개인의 성향적 변인보다는 상황적 변인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며(Ross & Nisbett, 1991), 최근 Salmivalli 등(2011)과 Kärnä 등(2010)도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이 개인적 특성보다는 학급수준의 가해강화행동 정도와 방어행동 정도에 의해 더 강력하게 예측됨을 증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방어, 방관행동 역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전체의 맥락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또래괴롭힘 연구에서 수동적 방관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변인들을 검토하였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예, 서미정, 2008; Gini et al., 2008; Pozzoli & Gini, 2010)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에 의해 방어행동과 연합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Pozzoli와 Gini(2010)의 지적처럼 방어행동과 방관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은 동일 변인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변인들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즉, 방어행동을 늘리는 변인들을 사용하여 방관행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서미정(2008)이 수동적 방관자로 분류된 5-7학년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그 하위유형을 구분하였을 때, 공감이나 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뿐 아니라, 괴롭힘의 결과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를 돕는 행동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그 정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방관자 유형에

관련이 있었다. 특히 서미정(2008)은 방관자들의 개입행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어행동으로 인한 대가(cost)보다는 이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Pozzoli와 Gini(2010)는 또래괴롭힘을 목격하였을 때 취하는 대처 전략에서 방어자와 방관자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또래압력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관행동이 방어행동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방관행동에 기여하는 고유한 변인들을 찾아 그 기제를 이해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윤정 (2010). 청소년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4), 263-281.
- 김연화, 한세영 (2011).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32(3), 1- 23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 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희화 (2002).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9), 47-61.
- 도현심 (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 (1998).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 서울大學敎 師範大學 敎育研究所
- 백지현 (2010).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에 따른 인지적·정서적·사회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남녀 중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22.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심희옥 (2005). 또래괴롭힘과 대인 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 종단연구: 참여자 역할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심희옥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아동의 성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1-17.
- 양경수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9(2), 75-84.
- 오승은, 이승연 (2011). 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아시아 교육연구*, 12(3), 147 -169.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

- 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 정 (2012). 아버지 애착표상, 아버지 탐색민감성, 유아 애착안정성 및 유아 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차윤희 (2005).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역할과 사회적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11년 전국 학교 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토론회 자료집, pp. 5-35, 4월 17일. 서울: YMCA
- 최미경, 도현심 (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Gerbino, M., & Pastorelli, C. (2003). Role of affective self-regulatory efficacy in diverse spheres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4, 769-78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46.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2nd ed.). New York, NY: Basic Books.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 Erlbaum.
- Cappadocia, M. C., Pepler, D., Cummings, J. G., & Craig, W. (2012). Individual motivations and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bystander intervention during bullying episodes among children and youth.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 10.1177/0829573512450567.
- Caprara, G. V., & Steca, P. (2005).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rosocial behavior conducive to life satisfaction across ag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191-217.
- Caravita, S. C. S., Di Blasio, P. & Salmivalli, C. (2009).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empathy and social status on involvement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8, 140-163.
- Caravita, S. C. S., Di Blasio, P. & Salmivalli, C. (2010). Early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bullying: Is ToM involved?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 138-170.
- Coleman, P. K. (2003). Perceptions of parent-child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2, 351-368.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111-124.
- Eliot, M., & Cornell, D. G. (2009). Bullying in

- middle school as a function of insecure attachment and aggressive attitud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 201-214.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è, G. (2007). Does empathy predict adolescents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3, 467-476.
-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è, G. (2008).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ce*, 31, 93-105.
- Gourneau, B. (2012). Students' perspectives of bullying in schools. *Contemporary Issues in Education Research*, 5, 117-126
- Greenberg, M. T. (2009).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The Prevention Research Center for the Promotion of Human Development web: <http://prevention.psu.edu/pubs/documents/IPPAmanual0809.pdf>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h, H., Zimmermann, P.(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 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 307-331
- Hawkins, D.,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 512-52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cklin, C. N., Dipietro, J. A., Maccoby, E. E. (1984). Sex-typing behavior and sex-typing pressure in child/parent intera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3, 413-425
- Janson, G. R., & Hazler, R. J. (2004). Trauma reactions of bystanders and victims to repetitive abuse experiences. *Violence and Victims*, 19, 239-255.
- Kärnä, A., Voeten, M., Little, T. D., Poskiparta, E., Kaljonen, A., & Salmivalli, C. (2011). A large-scale evaluation of the KiVa anti-bullying program: Grades 4-6. *Child Development*, 82, 311-330.
- Kärnä, A., Voeten, M., Poskiparta, E., & Salmivalli, C. (2010). Vulnerable children in varying classroom contexts: Bystanders' behaviors moderat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victimiz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6, 261-282.
- Klomek, A. B.,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 S., & Gould, M. S. (2007).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 40-49.
- Kumpulainen K., Rasanen, E., & Puura, K. (2001). Psychiatric disorders and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7, 102-110.
- Lamb, M., Frodi, A. M., Frodi, M., & Hwang, C. P. (1982). Characteristic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wedish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5, 131-141.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aeda, R. (2004). *Empathy, emotion 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predictor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bully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4, 3957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58-367
- Mcdowell, D., O'Neil, R., & Parke, R. D. (2000). Display rule application in a disappointing situation and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6, 306-324
- Mcdowell, D., Kim, M., O'Neil, R., & Parke, R. D. (2002).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Marriage & Family Review*, 34, 345-364
- Monks, C. P., Smith, P. K., & Swettenham, J. (2005).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eer victimisation in preschool: Social cognitive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attachment profiles. *Aggressive Behavior*, 31, 571-588.
- Nickerson, A. B., Mele, D., & Princiotta, D. (2008). Attachment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roles as defenders or outsiders in bullying interaction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 687-703.
- O'Connell, P., Pepler, D., & Craig, W.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 437-452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A commentary of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Pellegrini, A. D., & Long, J. D. (2002).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dominance, and victimiz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hrough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59-280
- Pöyhönen, V., Juvonen, J., & Salmivalli, C. (2010). What does it take to stand up for the victim of bullying?: The interplay between personal and social factors. *Merrill-Palmer Quarterly*, 56, 143-163.
- Pozzoli, T., & Gini, G. (2010).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The rol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peer pressu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815-827.
- Puckett, M. B., Aikins, J. W., & Cillessen, A. N. H. (2008).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Aggressive Behavior*, 34, 563-576.
- Renken, B., Egeland, B., Marvinney, D., Mangelsdorf, S., & Sroufe, L. A. (1989). Early childhood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passive-withdrawal in early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57, 257-281
- Rigby, K., & Johnson, B. (2006). Expressed readiness of Australian schoolchildren to act as

- bystanders in support of children who are being bullied. *Educational Psychology*, 26, 425-440.
- Rivers, I., Poterat, V. P., Noret, N., & Ashurst, N. (2009). Observing bullying at school: The mental health implications of witness statu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 211-223.
- Ross, L., & Nisbett, R. (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NY: McGraw-Hill.
- Salmivalli, C. (2010). Bullying and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 112-120.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almivalli, C., Lappalainen, M., & Lagerspetz, K. M. J. (1998). Stability and change of behavior in connection with bullying in schools: A two-year follow-up. *Aggressive Behavior*, 24, 205-218.
- Salmivalli, C., Voeten, M., Poskiparta, E. (2011). Bystanders matter: Associations between reinforcing, defending, and the frequency of bullying behavior in classro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 668-676.
- Sainio, M., Veenstra, R., Huitsing, G., & Salmivalli, C. (2010). Victims and their defenders: A dyadic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 1-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tarrels, M. (1994).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5, 148-165.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Troy, M., & Srou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orbach, A. M., & Foster, S. F.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2003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web: <http://eric.ed.gov/PDFS/ED475380.pdf>
- Vondra, J. I., Shaw, D. S., Swearingen, L., Cohen, M., & Owens, E. B. (2001). Attachment stability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age.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3, 13-33.
-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8. 23.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8. 27.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ocial Self-Efficacy, Defending and Outsider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ung-Yeon Lee

Keng-Hie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self-efficacy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paternal/maternal attachment and defending or outsider behaviors. A total of 579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gende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complete mediation model without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was better than a partial mediation model, regardless of gender.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was significant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defending behaviors in all gender. However, emotion regulation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aternal attachment and defending behaviors only among boys.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was significant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outsider behaviors only among girls. In addition,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efficacy both served as mediators on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defending behaviors only among girls.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gender-specific approach was also emphasized.

Key words :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ocial self-efficacy, Defending behavior, Outsider behavior